



지선은 '1인 7표' 6.1지방선거 사전투표(27~28일)를 하루 앞둔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도내 선거구용 투표용지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 도내 선거구는 '1인 7표'가 기본이지만, 지방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모두 45곳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지면서 1인 4표나 5표 등이 주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정성학 기자

민주당 전국 선거 비상, 기델 곳 호남 뿐

사전투표 시작, 언론 및 당내 여론조사서 등돌린 민심 외혀
김관영 강기정 김영록 호남 도지사 후보 대국민 호소문 발표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지방선거 D-5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둔 더 불어민주당이 비상사태에 직면한 모양새다.

전북 등 호남에서 행해진 공천 파행 여파와 반 민주당 정서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도 절대 다수 기초단체에서 열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총판선대위원장이 출격할 인천 계양을 선거에서도 박빙 흐름을 보이면서 전북 정치권 주요 인사들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인천 지역 호남향우회 설득에 나서 등 직접 공략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와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등 호남 지역 광역 단체장 후보 3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 긴급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호남이 민주당의 혁신과 새 바람을 이끌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였고 미래혁신산업의 기지"라면서 "선거 후에도 민주당의 혁신을 요구하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안을 수렴 입안할 혁신위원회를 거당적으로 구성해 새롭고 강한 민주당 만들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안보에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코로나 위협에는 인도적으로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이 독주와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강하고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선거기간동안 전력투구하여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바라는 국민과 지지층, 당원의 바램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내 정치권에선 호남 광역 단체장들의 이날 긴급 성명서 발표를 긍정평가하면서도 무소속 돌풍 차단이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주류를 이뤘다.

실제 도내 기초단체 다수가 민주당 후보 열세로 분석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 여파가 기초, 광역 등 지방의원으로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호남이 민주당의 혁신과 새 바람을 이끌겠습니다!

지선 결전의 날, 오늘-내일 사전투표

2022 지방선거

6.1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관련기사 2면> 이번 지선 또한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와 일반 유권자가 분리돼 투표하게 됐다. 일반 유권자는 27일과 28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신분증만 지참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8일 하루만 투

광역 단체장인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 단체장인 시장 군수, 지방의원인 광역 도의원과 기초 시군의원,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도의원과 시군의원이다.

단, 지방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단독 출마로 인한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지면서 1인 4표나 5표 등이 주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해당 선거구는 투표용지가 없다. 도내 무투표 당선 선거구는 모두 45곳, 이는 전체 지방의원 선거구 약 4분의 1에

코로나 확진자는 28일 18시30분~20시
도시군의원 선거구 45곳 무투표 당선

표할 수 있고 투표시간은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이다.

지난 대선 때와 달리 확진자 전용 임시 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으며,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허가'를 받은 후 투표소를 찾아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선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또는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전북지역 지선 투표는 '1인 7표'가 기본이다.

달한다.

해당 선거구는 ▲광역 도의원= 전주1, 전주2, 전주3, 전주5, 전주6, 전주7, 전주8, 전주9, 전주10, 전주12, 군산1, 군산2, 군산3, 익산4, 정읍1, 남원1, 김제1, 김제2, 완주1, 완주2, 고창2, 부안 ▲기초 시군의원= 전주시, 전주시, 군산가, 군산나, 군산마, 군산사, 군산아, 정읍다, 남원라, 완주나, 순창가, 순창나, 고창다, 고창라, 부안나, 부안다 ▲기초 시군의원 비례대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한편, 본투표는 다음달 1일 예정됐다. /정성학 기자

진안에 인삼가공식품 연구소

흑삼 생산라인도 추가 구축

한방특구인 진안에 인삼 가공식품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연구소가 설립돼 눈길이다.

전북도는 26일 진안군 부귀면에 인삼가공제품 전문기업인 진앤삼 부설 연구소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앞으로 인삼의 효능을 극대화한 흑삼 제품을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이 업체는 기존 홍삼보다 사포닌 함량이 다량 함유된 제품을 선보여왔다.

현재 충북 영주에서 제품을 생산중인 이 업체는 2년 내 진안에 6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생산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진안산 6년근 인삼을 우선 수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측은 "이경우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성원 진앤삼 대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기업이 되겠다. 무엇보다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진출해 세계를 호령했던 고려인삼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 개소식은 이날 김창열 진안군 부군수, 양선화 전북도 투자금융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성학 기자

3면 여야 지방선거 후보 국회의원도 사전투표 독려

임실군의의회

군민의 소중한 뜻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의회

열린의정! 으뜸의회!

IMSIL-GUN COUNCIL

임실치즈테마파크